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말씀을 들으면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알아야 한다. 이
상세계는 ‘잊어버리면’ 못한다. 배웠어도 ‘잊어버리면’ 못하
는 것이다.
2. <노래의 이상세계>를 한다고 해도 노래하는 것을 ‘잊어버렸으
면’ 그 하루의 해가 넘어가 버린다.
3. 하나님은 때마다 ‘선지자와 왕들’ 을 보내서 이상세계를 이루셨
다. 그러나 가장 크게, 더 이상 없이 하는 것은 ‘메시아’ 를 보
내서 하는 일이다.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가장 큰 이상세
계’ 를 시작하신다.
4. 메시아가 와야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니,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보
야’ 이상세계에 대해 안다.
5. <예수님 당세>에는 오히려 쫓기고 당하며 살았기에 이상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 그 시대가 메시아를
믿고 따라야 이루어지는데, 소수의 시골 사람들만 따라왔다. 그들
만 데리고서는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충만하게, 원하는 대로, 합
당하게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 이 다 믿고 따랐어야 했다.
6.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행해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세계>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세
계’ 를 기다렸다. ‘안 믿는 세계’ 에서는 자기들이 이루려고 몸
부림을 친다.
7.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려고 하셨으나 반대하고 불신

하고 안 받아들이니 <이방>으로 나오셨다. 그 시간은 ‘3년’ 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이상세계는 그렇게 끝났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종교 박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다.

8. 예수님 돌아가시고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복음이 조금씩 전해졌으나, 전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계속 있었다. 그러니 이상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9. <이상세계>는 겪어야 알고, 해 봐야 안다. 그러나 해보지 않았으니 ‘신랑’이라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만 믿고 2천 년 동안 역사를 지나왔다.
10.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이루리라. 결혼하는 날과 같은 날이 온다. 신부들아, 기다려라. 그러나 10명 중 5명은 맞고, 5명은 못 맞는다.” 하시며 ‘가나안, 갈릴리의 혼인잔치의 풍속’을 빗대어 표현했다.
11. 이상세계는 <주인>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 다른 종교들도 믿는 자가 다시 온다고 기다린다. 불교는 ‘미륵불’이 다시 온다, 공자의 도를 좇는 자들은 ‘신 공자’가 다시 온다, 우리나라는 ‘정도령’이 다시 온다고 기다리며 믿음을 걸고 희망으로 살고 있다.
12.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하나의 전설과 같은 얘기, 종교인들의 희망 정도로만 안다. 어마어마하게 가르쳐야 겨우 안다.
13. <이상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오래전 이야기들이니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준다.

14. 뇌는 젊었을 때는 ‘100%’ 생각하고, 나이 먹으면 80% 죽고 ‘20%’ 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지가 잘 안 된다.
15. <선생>은 70일까지 굶어봤고, 이지가 아파봤고, 억울한 일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마음을 잘 안다.
16. 이상세계는 성경에 ‘이론’은 있으나 해본 자가 없다. <메시아가 온다는 이상세계>는 메시아를 만나 봐야 안다. 이에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는 ‘99%’라고 하셨다.
17. 선생은 메시아의 관한 것을 배우는 데에 ‘20년’이 걸렸다. 30개론에서 지금은 80가지도 넘는다. 더 가르쳐줄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준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18. 선생은 그렇게 ‘배워서’ 어디에 갔다 뒤도 호랑이 걱정하지 않듯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물에 내놔도 선생은 빠져 죽을 걱정이 없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원인이 하나 있으니, ‘따르는 자들’이 나를 따라오다 빠져 죽을 것이 걱정된다.
19. 조은목사에게는 싸우는 법을 ‘가르쳐놔오니’ 악한 자들이 덤벼도 걱정하지 않는다. 수영하는 법, 설교하는 법도 다 가르쳐주어서 잘 한다. 이와 같이 ‘가르쳐놓으면’ 걱정하지 않는다.
20. 이와 같이 너희도 ‘주가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이상세계를 이룬다. 그러나 안 배운 자들은 늘 걱정이다. 당하고 물리고 고꾸라진다. <안 배운 자>는 자꾸 고통 받지만, <배운 자>는 처리한다.
21. 전쟁터에 가기 전에 ‘총 다루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듯이, 하

나님 성령님 성자도 먼저 다 가르쳐주신다. 선생은 쏘지 않고 승리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배워서 ‘사랑’으로 전쟁했다.

22. 이상세계가 와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섬기며 그대로 해야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야 ‘어떻게 이상세계 이루어지는지’ 확실히 안다. 그전에는 안다고 하면 거짓이다.
23. <예수님 당세 이상세계>는 그 주권권에 살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뤘고, <구약>은 구약급 세계에서 이뤘다.
24. 선생은 성경을 닳도록 읽었다. ‘성경 33권’이 수석이 닳도록 닳아서 다 없어졌다. 지금 보는 성경이 34권째 성경이다. 법관이 되려면 ‘법’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25. 한 제자가 우연히 듣고 보고하기를, 어떤 기독교인이 선생을 두고 “이단 소리 듣지만, 성경은 그 자한테 배워야 한다. 나도 신학 나왔지만, 전혀 다르더라. 제대로 100% 가르치더라.” 했다고 했다. 하나님이 보통 해놓고 내보내서 따르게 하지 않는다.
26. 본인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사랑해줬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와 같이 ‘메시아 일을 해줬기 때문에’ <메시아, 주, 선생>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수만 명이 넘는다. 그만큼 해줬기 때문이다.
27. <이상세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와도 ‘본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못한다는 것이다.
28. 하나님이 이상세계의 일을 하니, 하나님과 붙은 <주>는 ‘심부름꾼, 대변자, 중매자, 중보자 역할’로 왔다.

29.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은 ‘전해줄 것’ 이 있기 때문이다. 안 믿으면 가져온 것이 있어도 줄 수가 없다. 나를 믿어야 ‘하나님께 받아온 말씀’ 을 전해준다.
30. 자기가 따지고 “아니다!” 하는 것은 ‘자기 수준’ 이 낮아서 성경 전체를 모르고, ‘메시아가 아니니’ 모르는 것이다. 모르니 성공을 못 했다. <메시아>는 다 아니, 여러 가지 성공을 다한 자가 됐다.
31. 선생도 그 전에는 20년 동안 ‘따뜻한 옷 한 벌, 운동복 하나’ 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하게 많다. ‘영의 옷’ 도 그같이 많다. 이와 같이 자기가 만들어져야 이상세계를 이룬다.
32.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진행되어도 ‘자기가 모르면’ 못한다.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33. 수영장, 헬스장이 다 있어도 ‘안 가면’ 못하고, ‘기술이 없으면’ 못한다.
34. 선생은 월명동에 수영장을 만들어놓겠다고 ‘절대적인 사상과 정신’ 을 가지니 만들었다. 이와 같이 <대상>이 ‘마음먹기’ 에 달렸다.
35. 강한 사상과 정신이 있어도 <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한다. <지혜>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무한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할 수 있다.
36. <초인>이 되어야 얻고 누릴 수 있다. ‘금덩어리’ 를 얻었어도 들어올릴 <힘>이 없으면 못 가져가듯이 능력이 있어야 감당한

다.

37. <건강>해야 감당한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도 많이 아팠다. 머리로 아팠고, 골치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고, 몸도 아팠다. “내가 고통을 아니, 너의 고통도 안다.” 하셨다. 자기도 ‘아파봐야’ 아픈 자를 깨닫게 된다.
38. 선생이 쓴 시에, ‘내가 따뜻하니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해주고 싶다’ 했다. 그래서 추우면 들어가라고 ‘호텔들’ 을 사다가 하나님 성령과 함께 꾸며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해서 행해 주신다.
39. 믿고 따르고, 사랑이 충만해야 하고, 충성이 충만해야 하고, 씻고 닦고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40. 선생은 ‘바닥’ 서부터 올라와서 메시아가 됐다. 5년 동안 ‘거지생활’ 도 해봤다. 그 당시에 5억, 10억씩 준다고 했어도 그같이 했다. 미친 사람 데려다 고쳐주고, 거지들 밥 주고, 같이 일도 하고, 씻겨주고, 머리로 깎아주며 이 세상에 <구원세계>를 펴왔다. -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완벽하게’ 내보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잘못됐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이다.
41. 본인이 ‘만들어져야’ 주만큼 이상세계를 이룬다. 상상을 못 하게 노력해야 한다.
42. 반드시 ‘자기 인생’ 을 만들어라. 자기를 만든 만큼만 이루는 것이다.